



HPV 예방접종·달빛병원 등 현안 신적한 소아과학회

양세원 이사장 취임 1년 소회...신임회장 배종우 교수 선출



▲양세원 이사장.

대한소아과학회 제66차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1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양세원 이사장은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되돌아 보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백신 접종과 개원가의 달빛병원 등 학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015년에 취임한 양세원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몇 가지 공약 중 하나가 통일을 대비해 준비하는 것과 7000여명의 회원들을 한자리에 모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1년 동안은 제 할일을 수행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고 소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공약에 맞춰 대한소아과학회 산하에 있는 12개 지회 회원들과 모임을 갖는 등 좀 더 가까워지고 지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이사장은 “통일의학, 특히 북한어린이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회나 단체가 많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며 “소아과학회도 북한어린이 건강 대비에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과학회가 추진하는 과제들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내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미션비전도 선포할 계획이다.

양 이사장은 “분과학회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홍보책자나 육아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특별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변화하게 될 전공의 수급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환경 위원회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며 수급이나 환경 등을 적정히 실행하고 감독하는 기구들도 생긴다”며 “그에 맞춰 전공의 수급에 대한 문제, 전공의 수혈시킬 수 있는 병원의 판단 기준 등을 수정하고 세분화시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급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몇 명이 적정한지 등 전문의의 수급에 관한 문제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학회의 주도적인 움직임에 소아과학회도 동참기로 했다.

양 이사장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임기 2년밖에 안남았지만 향후 이사장들이 회기문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참여를 거부해 논란이 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개원의사회와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정감사를 통해 불거진 돔페리돈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개원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적인 문제점을 학회도 정부 관계자와 만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며 “돔페리돈 사건은 전혀 몰랐던 일로 학회는 전혀 관련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소아과학회는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국가필수 예방접종(NIP)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사업”이라며 “일반 국민들에 대해 홍보도 안돼있는 만큼 소청과 의사들이 12세 여아들의 사춘기 발달이나 예방접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한 소아과학회 회장도 NIP 사업 주체가 소아청소년과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일본에서 백신을 맞고 집단 이상반응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산부인과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후 접종률이 80%대에서 20%대로 떨어져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아과는 예방접종에 대한 인프라가 산부인과와는 달라 이상반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감·뇌수막염 백신 등 접종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자궁경부암 백신 NIP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며 “NIP 예방접종 연령을 현재 12세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강진한 회장의 뒤를 이어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중우 교수가 제 56대 대한소아과학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11월부터 1년이다.

배중우 교수는 한국 최초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서 인공 폐 표면활성제 치료법을 도입해 미숙아 생존을 향상에 기여했으며 미숙아 관련 각종 의료제도 개선, 미숙아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학회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 신입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정부의 정책변화 속 여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점에서 학회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신임 배중우 회장

느낀다”며 “하나들 합력적으로 문제를 헤쳐 나가면서 학회의 국내외 위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대한신생아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저출산대책 의료포럼 상임대표, 대한의학회 재무이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출판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소아감염병과 가와시끼병’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초청강연, 한일교류 강연 등과 함께 런칭심포지엄, 전공단위의 연제발표 등이 있었다.

또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소아응급의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등 분과학회의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조정희 기자/MP저널